도요보의 새로운 결속방적사, “볼품은 없지만 품성은 좋아”

도요보의 텍스타일 상품개발센터는 1998년에 새로 개발된 결속정방기로 색다른 실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실은 특히 내마모성(耐磨耗性)이 뛰어나게 좋았고, 잔털도 아주 적으며, 드라이(dry)한 맛도 있어, 춘하절용 옷 소재로 좋을 것 같아, 직물과 편지(編地)를 만들어 영업사원에게 보여 주었다. 그들은 첫눈에 한마디로 “볼품이 없다”고 평하였다. 그러고 보니 천의 표면이 말끔하거나 깨끗하다기 보다는 뿌연 느낌이 들었다. 개발자는 “볼품은 없을지라도 품질은 좋다”고 주장하였다. 영업사원도 품질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팔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영업사원에게 보여준 상품은 순면 결속방적사로 짠 천이었으므로, 항필링성(抗pilling性)이 우수하다는 등의 좋은 점을 적극 소비자에게 알리면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폴리에스터 · 면 혼방과 폴리에스터 100%의 결속방적사를 만들어 스포츠복에 적합하리라고 주장하였으나 영업사원은 선뜻 나서주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텍스타일 개발센터가 16추짜리 시험용 결속정방기를 관리하고 있어, 그 곳에서 시제품 생산을 해오고 있었는데, 1999년 말에 “도야마(富山)”현의 “쇼가와(庄川)” 공장으로 신제품 개발업무를 넘기면서 시험용 결속정방기도 옮겨졌다.

텍스타일 상품개발센터가 “쇼가와” 공장으로 옮긴 다음에도, 결속방적사의 상품화를 계속 추진하자, 이 결속방적사를 개발하기 시작한지 5년만에 드디어 영업사원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상품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시장에서 신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하고 보니까 시험용 결속정방기로서는 상품의 양이 너무 부족하여 2003년 7월에 72추짜리의 본격적인 결속정방기를 도입하

여 “이나미(井波)” 공장에 설치하였다. “볼품은 없어도 품질은 좋은” 실 “세레스”가 섬유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